

동네방네



친환경 쌀 직거래 공급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예천군

예천 친환경쌀 '상큼미', 서대문구 학교 공급

친환경쌀 품평회서 품질 우수성 인정

예천군 무농약 친환경쌀 '상큼미'가 6월부터 2년간 서울 서대문구 초·중·고 등학생들의 학교 급식을 책임지게 됐다.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서대문구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쌀 품평회'에서 상큼미가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교 급식용 쌀로 선정돼 서대문구 초·중·고등학생들의 급식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친환경쌀 품평회에 참가한 상

큼미는 영농조합법인 연자방아친환경쌀(대표 정원화)이 지역 친환경쌀 회원 농가의 무농약 일품벼를 수집해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자체 GAP(농산물우수관리) 도정시설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가공되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예천 친환경쌀은 낙동강 상류의 비옥한 평야에서 맑은 물과 풍부한 일조량을 받고 재배되어 미질(米質)이 우수하고 밥맛이 뛰어나며 현재 80여 농가에서 134ha가 재배되고 있다.

/예천(경북)=문봉현 기자



장미꽃 만개한 명주테마공원

경북 상주 명주테마공원에 장미꽃이 만개했다. 함창읍 명주테마공원에 조성한 장미동산(1만8500㎡)에 장미 4만 그루가 꽃을 활짝 피웠다. 시는 5월말 장미꽃 100만 송이가 만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주시는 2017년 잡초가 무성한 언덕을 일궈 장미동산을 조성했다. /상주시

안동시,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추가 신청 접수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우편 신청

안동시는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신청 누락자를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안동시는 재난 문자, 반상회보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진행했으나, 고령, 장애, 질병, 입원, 시설 입소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도 애초 기준이 변경돼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Weather forecast for May 20th, including temperature (19-20°C), wind speed, and a map of Korea with regional weather icons.

경북도 하천복구사업,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건설경기 회복에 1945억 신속 집행

이철우 지사 건설경기 회복 의지 15건 입찰 자격 경북도내로 제한 3건은 주계약자 관리방식 발주

경북도가 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15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경북도내로 제한하고 사업비 1945억원을 신속히 집행한다. 이 중 3건은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업계의 지역제한 요청을 적극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자하는 이철우 경북도 지사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태풍 재해복구사업은사업의 특성상 조속한 수해복구가 급선무인데 대규모 사업으로 묶어 전국입찰로 발주하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높고 자본과 기



영덕군 유금천 하천재해복구사업 /경북도

술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지역인력과 장비·자재의 사용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경북도내로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도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입찰참가부터 공동계약을 맺기 때문에 자본력이 부족한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입찰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지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이번 재해복구사업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유실된 제방과 파손된 구조물 등 개선복구가 시급한 제방을 보강하고,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하천범람을 유발하는 노후 교량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 금천 등 6개 하천에 1241억 원, ▲영덕군 송천 등 5개 하천에 630억 원, ▲경주시 남천 및 성주군 이천 등에 74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5월 중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파주 시설관리공단, 도시관광공사 전환 추진

공사전환 주민설문 76% 찬성 기대효과로 경제 활성화 꼽아

파주시는 시설관리공단공사전환타당성 용역을 완료하는 등 공단을 '파주 도시 관광공사'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9일 지난 1월 시설관리공단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조직변경동의안, 출자동의안,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연내 공사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자치분권 시대

에 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사의 설립은 필요하며 공사 전환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6.1%의 찬성률을 기록해 높은 주민 숙원도를 보였다. 공사 설립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주시는 임진각 관광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운영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다수의 개발사업이 계획돼 있어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인만큼 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함에 있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공사설립을 추진하며 도시개발과 더불어 파주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에 주력하고자 공사의 명칭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확정함으로써 공사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명시했다.

시는 파주도시관광공사설립을 통해 공사 자체 역량을 강화해 주제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환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행사업 위주의 공단 체제와 달리 공사는 개발 이익금을 관내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본격화

목포시 5년간 총 사업비 500억 호남은행 목포지점 등 2곳 매입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이 근대건축자산 매입을 시작하며 본격화 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역의 노포(老舖) '갑자옥 모자점'과 '구(舊) 호남은행 목포지점' (등록문화재 제29호)을 매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공적활용을 위해 첫 번째로 매입한 '갑자옥 모자점'은 100여년 전 당시 목포에서 가장 번화했던 조선인 가게로 근대도시 목포의 영광과 쇠락을 함께 한 곳이다. 시는 이 노포(老舖)를 모자박물관으로 보수 정비하여 그 가치와 정체성을 이어나갈



구. 호남은행목포지점 사진 /목포시

계획이다.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는 차치하고 가족에게도 의미있는 곳이라 매각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선친께서 의미 있는 곳에 쓰이기를 바라셨다"며 "이 건물을 초석 삼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해 달라"고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구(舊) 호남은행 목포지점'은 호남 최초 민족계 은행이라는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곳으로, 목포역과 원도심 중심상권 오거리에 인접해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시작점이다.

한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 공간단위 등록문화재 제718호(2018. 8. 등록)인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산재한 근대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약 500여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역사·문화·건축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 및 경관훼손 건축물 매입을 마무리 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